문성현(전 민주노동당 대표)·이혜자[1] 1차 구술

1. **구술자**: 문성현, 이혜자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7월 23일
5. **구술장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구술자 농막(農幕)
6. **구술분량**: 11분 35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구치소 접견실에서 첫 만남과 노무현 변호사의 변론

면담자 : 대표님은 천구백팔십(1980)년에 동양기계에 입사하셔가지고 통일에 합병되고 나서 팔십오(85)년에 말씀해주신 대로 노동조합 위원장에 선출되시는데요. 그래서 팔십오(85)년 유(6)월에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첫 번 구속이 되는 걸로 책에서 봤습니다. 이때 처음 대통령님 만나신 건가요?

문성현 : 변호사로 제 담당 변론을 맡으셨으니까 그때 처음….

면담자 : 그때 노무현이라는 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성현 : 저는 전혀. 그때만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역에 이런 노동쟁의가 일어나가지고 사건이 터진 게 물론 그 전에 있었겠지만 전국적 사건화 되고 한 게 우리 사건[2]이 처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노동운동이 서울이나 인천에는 쭉 있었는데, 특히 우리 지역(창원)에는. 그래서 서울에는 민변[3]이라는 게 있는 걸 알았는데 '여기 [변호사가] 있겠나?' 또 '서울서 누가 오겠나? 그, 꼭 온다면 서울서 누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부산에서 오셨어요. 오는 과정은 저는 [감옥]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는 [제 부인이]….

이혜자 : 아니 근데 저도 누가 부산에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당연히 창원 쪽에 이걸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중앙(서울)에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간 제가 부산을 갔어요.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러.

면담자 : 그럼 부산 부민동 사무실을 가보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

1) 문성현의 부인
2) 창원 소재 방위산업체인 (주)통일의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등 탄압사건.
3)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신으로 1985년 당시는 정식 출범 전이었음.

이혜자 : 그렇죠. 거기를 우리가 주로 오래 다녔죠. 그때 노옥희[4] 선생 같은 경우 학생 때 구속이 돼가지고 석방돼서 거기 찾아왔을 때 [변호사님이] 만나고 그랬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노옥희 선생을] 특별히나 예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너무나 조카딸애한테 하듯이 농담하시고. 그때 찾아갔을 때 하여간 그렇게 [울먹임] 당신은 그니까 우리를…. 안심시켜주려고, 농담도 하시고 그랬던, 그런 기억.

면담자 : 팔십오(85)년 정도면 사실 대통령님이 노동사건은 그렇게 접해보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혜자 : 아마 첫 재판이었죠, 우리가? 노동문제로는. 그 시기가 대우자동차 사건[5]도 있고, 서울 쪽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학생 출신의, 위장취업을 해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졌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그때 변호사도 창원에서 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정도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문성현 씨가] 구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랬죠.

면담자 : 대표님은 처음 노무현 변호사가 [구치소로] 왔을 때 어떠셨어요, 첫인상이랄까?

문성현 : 그때는 저도 처음 구속이고, 부당한 노동탄압이다 그래가지고 한 열흘인가 단식, 구속되자마자 옥중투쟁이다. 그때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단식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접견실로 가니까, 내가 먼저 나가있었지 접견실에.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키 작으시고 걸음걸이가 특이하시잖아요. 특이하시잖아,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특이하시고, 그때 송병곤[6]이랑 같이 왔었는데 송병곤이 부림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소개하고. 그래서 이름도 이제 처음 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서울에 있는 민변은 알아도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처음 알았고, 처음 봤고. 그니까 아마 계산을 하셨는가 봐요. 첫날은 많은 이야기는 안 하고 '맡게 됐다' 이런 이야기. 내가 기억나는 게 그때만 하더라도 접견실에 항상 교도관이 입회를 했다고, 옆에 교도관이.

이혜자 : 입회하고 기록하고.

---

4) 노옥희는 부산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부터 울산 현대공고에서 교사로 일했다. 1986년 부산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의 '교육민주화선언'에 동참한 일로 해직당하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5) 1985년 4월 대우자동차 노조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열흘간 전개한 파업투쟁을 말함.

6) 부림사건 피해자 중 한 명으로 2년여 간 옥고를 치르고 나와 1984년부터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해 9월 변호사 사무실 내 개소한 노동법률상담소 실무책임을 맡았다. 노무현사료관에 송병곤의 관련구술 일부가 공개되어있다.

문성현 :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기록하지 마라’고, ‘왜 기록하냐?’고. ‘우리가 하는 거(대화)는 그냥 듣기만 할 뿐이지 기록하면 안 된다.’ 교도관이 ‘기록하게 돼있다’고 하니까 ‘못하게 돼있다’고 그것부터 정리를 하시더라고, 기록 못하게. ‘우리끼리 자유롭게 변론해야 되는데 당신이 옆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거한데(불편한데), 적지마라’ 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적었을 거야. 기억이 그것만 나고. 상당히 좀, 뭐라 하나 ‘강단이 있는 분이구나’ 그런 내가 기억나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걸어오시는 것 하고, 그때 접견하는 옆의 교도관한테 적지 말라고 호통하는 것하고.

그때는 파업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방위산업에서. ‘이거는 실형은 기본이다. 최소한 이(2)년 실형이다. 이(2)년 징역 살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 투쟁의 정당성, 이런 것에 대한 탄압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자.’ 노무현 당시 변호사님도 대충 각오하셨을 거고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해 구질구질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변호사님은]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하셨을 것 같아. 어쨌든 빨리 풀어내[려고]. [웃음]

이혜자 : 아니, 속으로가 아니라 실제 이 분은 굉장히 좋은 변호사였어요. 제가 그때 [재판]과정을 봤을 때 그 재판을 맡았던 홍 판사[7], 변론 전에 홍 판사를 만나러 오셔서 저희를 보고 가셨어요. 창원에 오시면 접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날은 막 우릴 이렇게 하시더니 ‘내가 판사한테 맥아더가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이런 시(詩)도 내가 프린트 해가지고 가서 읽어주고 그랬다’ 그러면서 정말 읽어준 건지 아니면 프린트해서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맥아더가 아들한테 쓴 시[8]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런 시인데 그러면서 홍 판사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형을 어떻게든 안 받게, 아니면 적게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정성을 쏟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굉장히 고맙게 느껴졌었는데. 그러니까 이 분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나는 가족이지만 법정투쟁, 그러니까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도 다 ‘어떻게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의미 있게 되도록 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든 [구속자를] 좀 빼내고 싶어서, 판사한테 가서 호감을 서로

7) 당시 이 사건 재판을 맡은 홍광식 판사.
8) <아들을 위한 기도(A Soldier's Prayer for His Son)>,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이끌었던 맥아더가 지은 시.

주고받으려는 노력도 하시고,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이 분은 상당히 내가 모르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계시구나' 생각했었죠.

면담자 : [법정에서] 그렇게 변론을 길게 하셨다는데 서로 나눈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문성현 : [변호사님이 나한테] '왜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냐, 서울 상대[9]까지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태일[10] 이야기부터 하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두]. 물론 내용적으로는 민주화투쟁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전태일이 있었다. 그 분이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게 됐다.' 이게 상당히 사실이기도 하고, 또 재판정에서 설득용으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기억에도 노무현 변호사가 [저에게] 와서 끊임없이 가장, 본인부터 궁금해 했던 것이 '왜 이 사람이 서울 상대까지 나와 가지고 노동운동을 하게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전에 부림[사건 변론]도 하고, 와이엠씨에이(YMCA)[사건 변론]도 했지만 노동 관련은 처음이니까.

저는 '전태일 [책을] 보시라' 본인도 그거 읽어보시고, 재판장한테도 한 권 갖다 주고, 검사한테도 하나 갖다 줬다 그러고 그 책[11]을. [변호사님이] '문성현을 알려면 이 책을 봐야 된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상당히 길게 말씀하셨고 결론은, 그런 걸 통해서 변론도 하시지만 본인도 노동[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신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 문성현 주요이력

1952. 경남 함양 출생

1970. 진주고등학교 졸업

1975.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1980. 동양기계 입사

---

9)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10)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인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에서 하루 열네 시간 이상 일하는 여공들의 참혹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다 1970년 22살의 나이에 분신해 숨졌다.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삶을 사회문제로 부각시키며 이후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11) 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어느 청년노동자의 죽음)>

1981. 이혜자와 결혼
1985. (주)통일 노조위원장 당선
1988. 경남지역노동자협의회 의장
1989.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의장
199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1999.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2004.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민주노동당, 경남도지사)
2006. - 2008. 민주노동당 대표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민주노동당, 창원시장)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출마(통합진보당, 창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지도위원

■ 이혜자 주요이력

1955. 출생

1981. 문성현과 결혼
1987. 경남지역노동자협의회 활동
1988. 마산·창원노동조합연합 정책실장

문성현과 이혜자는 함께 노동운동의 길을 걸어온 동지이자 부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문성현은 1980년 동양기계에 입사, 노동현장에 투신한다. 81년 문성현과 결혼한 이혜자는 서울 구로공단 봉제공장에 취업해 학생운동을 하다, 남편을 따라 경남으로 터를 옮긴다. 1985년 6월, 문성현이 (주)통일의 노조위원장이 되고 얼마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수감당하면서 노무현과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후 문성현은 1994년 전국노동자협의회 사무총장, 1999년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 노동운동사의 큰 인물로 성장한다. 2006년에는 민주노동당 대표를 맡는 등 대통령 재임기까지 노무현과 긴 인연이 이어졌다.